

+

고양이 반려동물 이야기

# 언제나 행복하게 우리 모두 함께할 고양이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지하철 3호선 원흥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서면 동식물을 위한 포근한 보금자리가 발길을 맞이한다. 열대식물 생태온실부터 동물보호센터까지, 모두 시민 정서함양과 생명존중 등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공간들이다. 주인 없는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를 소개한다.



“반려동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경기도 최초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활기차다. 능글맞은 강아지들이 활기차게 뛰어놀고, 양중맞은 고양이들이 갖은 애교를 부린다. 어서 오라고 반기는 꼬리와 맑고 영롱한 눈이 얼마 전까지도 사람과 함께 어울려 지냈음을 보여준다. 주인을 잃어버렸거나,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반려동물들은 이곳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입양을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힌다. 선택을 바라며 애달프게 울부짖는 모습에 마음이 몽글해지기 때문이다.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2014년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의 직영 동물보호센터로 개관했다. 동물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1년에 1,00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들이 이곳에 입소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어플을 통해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입양을 희망하는 동물과 만나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수다.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에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문의 031-962-3232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원흥동)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주인을 잃어버려 이곳에 온 동물들은 몇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정식으로 합류하게 된다.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다.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수의사들의 철저한 검사와 안전한 치료를 통해 새 가족을 만날 준비를 한다.

실제로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입양 대상 동물의 수술 및 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백신접종, 진단키트,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등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입양확인서 및 입양비용 청구서 등을 지참해 동물보호팀에 제출(방문)하면 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센터 뒤쪽에 자리한 산책 놀이터다. 강아지들은 하루에 두어 번씩 번갈아 가며 산책놀이터로 나간다. 실내가 아닌 널찍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유를 만끽한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센터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포근하고 안락한 공간이 꽤 마음에 드는 눈치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는데,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유기된 것으로 간주해 동물보호시설로 옮기는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 배변봉투를 지참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강아지가 소변 본 자리에 물을 뿌려주는 것도 에티켓임을 잊지 말자.

